

내년도 인사운영 기본방침 변경

남원시 6급 이상 보직관리·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등 운영 계획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내년도 인사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일 잘하는 조직을 위한 혁신을 시작하였다. 남원시는 '2017년 인사운영 기본방침'에서 6급 이상 보직관리,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등을 변경하고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6급 이상 보직관리 기준은 크게 6급 무보직 공무원 평가제도, 6급 담당 이상 (중간)관리자 일시적 보직 정지제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6급 무보직 공무원 평가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근속승진인원(직렬별 대상인원의 30%)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능력과 성실함을 겸비한 직원에게 담당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6급 무보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점 점과 무보직 경력, 그 밖에 시정발전 기여도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그동안 승진일 기준으로 부여하던 담당 보직부여 체계를 대폭 손질한 것으로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원시는 6급 담당 이상 (중간)관리자급의 일시적 보직 정지제도를 마련하여 근무태도 불량자, 사회적 지탄 대상자, 부서장의 반복적 전출요구자 및 징계 처분자에 대하여 평가위원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일시적으로 보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시적 보직 정지제도는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공무원이 근무태도 등이 불량할 경우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하에 그동안 근무에 불성실한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는 문제를 보완하고, 일 잘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는 실적가점을 부여하는데 있어서도 기존의 부여기준을 상당부분 변경하여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 지방행정청의 달인,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정부 포상자 가점을 추가하고, 중앙부처에서 선정되거나 일부 수용된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가점도 추가하였다.

무엇보다 현재 저출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 이상을 출산한 공무원에게 다자녀 출산자 가점을 부여하여 남원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도 남원시의 '2017년 인사운영 기본방침'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관리 및 활력이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인사정책의 실시를 위한 기준을 담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AI 거점소독장소 현장 방문

“선제적 차단방역·철저한 방역관리” 당부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AI(고병원성 조류독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소독실시와 철새 도래지인 동림저수지 전면 출입 통제 등 선제적 차단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26일 AI 차단방역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초소 7개소(거점소독장소 4, 통제초소 3)를 방문해 노고를 격려하고 더욱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고창군은 AI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근무하고 있으며, 방역초소 7개소(거점소독 4, 일반소

독 2, 통제초소 1)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박 군수는 이날 관계 공무원과 초소 근무자들을 만나 “고창군은 지난 9월 신림면 소재 종오리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로 추가 발생 신고는 없으나, 전국적으로 AI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 AI 차단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군민들의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 속 근무자들의 안전한 근무를 당부하고 방역활동에 사활을 걸고 임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추가

발생 없이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고창군은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 출입을 전면통제하고 방역방제기를 이용해 동림저수지 주변 가금사육농가 진입로에 중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군 청사, 결혼식장, 정례식장 등)에도 손소독제를 배치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창군은 AI가 조기에 종식되기 위해서는 군의 철저한 차단방역도 필요하지만, 축산농가와 군민들의 자율적이고 협조가 가장 필요하며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종합생산성 수준 대폭 상승

순창군의 종합생산성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생산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순창군이 전체 응모 자치단체 187개 중 지난해 종합순위 73위에서 37위로 경종 상승한 것이다.

또한, 5만비만 군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지난해 대비 8계단이 상승해 5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거뒀다.

▲행정관리 ▲지방재정 ▲지역경제 ▲주민생활의 4개 분야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군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진단한 이번 생산성 진단 결과에 따르면, 채무 제로화 및 국가예산 확보 노력 등에 힘입은 지방재정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가져왔으며, 특히, 주민

생활분야의 경우 지역문화지표 개선도 및 출산율 증가를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점수를 받아 전체 순위 10위, 5만비만 군 3위를 차지했다.

군은 이번 생산성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공무원 개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감은 물론 나아가 지역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완주군, 귀농 희망자 입교 세대모집

내년 1월 11일까지... 영농기반 확보 가능성 등 평가 선발

완주군은 일년여 동안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영농교육 및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 10세대를 2017년 1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완주군으로 전입후 귀농을 희망하는 자로 가족수, 영농교육 이수정도, 지역활동계획, 영농기반 확보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지원서는 완주군과 완주군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완주군청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 후 면접 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1월중 심층면접을 거쳐 2월중 입교생 선발을

확정한 후 3월까지 입교해 2017년 12월까지 가족단위로 체류할 수 있는 주택과 텃밭, 영농교육 등 영농정착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고산면 삼거리 지역경제순환센터 옆에 위치한 완주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는 주택 10세대와 영농실습장을 갖추고 있으며, 입교비용은 주택면적에 따라 월 18만원~22만원이고 세대별 공과금은 개별 부담한다.

입교 문의는 완주군청 농업농촌식품과 귀농귀촌팀(☎063-290-2473~5) 또는 완주군귀농귀촌지원센터(☎063-261-3730)에서 가능하다.

/완주=이종복기자

남원시, 쌀 산업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

남원시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과거 증산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물론 고품질 쌀 기반을 구축해 남원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6일 '2017년 쌀 산업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남원시 관내 기관·단체와 각 지역별 쌀 산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쌀전업농, 참미단지, 친환경 쌀 생산농가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2017년에 추진하게 될 쌀 산업 전략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열린 토론을 벌였다.

특히,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가욱 교수를 초청하여 전반적인 쌀 산업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중점 논의 사항은 품질 통일화 및 미질향상을 위한 수매제품 변경과 비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서 2017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였고, 쌀값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와 토론을 하였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제는 증산 위주의 쌀 생산에서 과감히 탈피해 밥맛 좋은 쌀 생산으로 전환하고, 우리 지역의 자연 생태환경을 살린 유기농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소비자가 찾는 고품질 쌀 생산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원시는 쌀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쌀 적정 생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과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위해 조직화·규모화 된 들녘경영체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순창경찰, 치안설명회 개최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동계과출소(소장 박현규)에서는 동계면 기관장들을 초청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치안활동과 관련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2016년 한 해동안 동계에서 발생한 절도 등 범죄양상, 교통사고 발생, 보이스피싱 수법 등 사례를 소개하고 내년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주민간담회 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날로 급증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구공정, 장문목 화장실 등 여성안심취약지역에 대한 순찰동선을 설명한 후 단 한건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박현규 소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112순찰과 자율방범대와 민·경 합동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여성범죄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경찰, 특별방범활동 전개

고창경찰서(서장 박현수) 공무과출소(소장 이주영)에서는 즐겁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44일간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강·절도 등 범죄에 집중하여 예방활동에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융기관 및 유동인구가 많은 소재지 주변을 특별순찰 및 거점지역으로 지정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방범활동에 나서면서 관내 금융기관 대표자와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금융기관에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 방범단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순찰을 실시하는 등 민·경 협력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소장은 “앞으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하여 자율방범대 등 관내 협력단체들과 치안협업을 통해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